

# ‘시민께 새희망 선사할것’

# 다 함께 배우는 교육도시 군산 실현

###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이항근 이사장 선출... 공동이사장 체제

군산시는 5일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 이사회를 열고 이항근 이사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실시한 이사회에서는 임원 10명 중 7명과 감사 1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이항근 이사장 선출에 찬성했다. 이항근 이사장은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다 함께 배우는 교육도시 군산 실현을 위해 한단계 도약했다.”

신임 이 이사장은 교직에 36년 동안 몸담은 교육 전문가로, 군산교육의 새 비전을 일으킨 회현중 교장, 한빛고 교장,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을 역임하며 군산교육 발전을 이끌어 갔던 경험으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이사장 적임자로 판단돼 선출됐다. 이 이사장은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이며 군산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강임준 이사장님과 함께 협력하여 교육하기 좋은 도시 군산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청소년 자기계발인수비, 마중물스터디 사업, 방과후 맞춤형교육 프로그램 등 13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군산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군산=김판근 기자

### 익산시의회, “새해 시민행복 · 익산발전 최우선” 의정운영 방향 제시

익산시의회 최중오 의장은 5일 오전 2022년 의정활동 성과와 2023년 의정 방향을 주제로 기자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한동연 부의장,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이 함께해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2023 익산시의회 신년 기자 브리핑

최중오 의장은 “지난해 제9대 익산시의회가 출범 이후 시민의 뜨거운 열망과 기대만큼 어깨의 무게를 감당하며 익산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다”라고 하면서 브리핑을 시작했다.

먼저 2022년 의정 성과는 “총 6회 88일 동안 회기를 운영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482건의 불합리한 행정 집행에 대해 조치를 요구했고, 5분 자유발언 41건, 시정질문 11건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조례안 23건을 의원 발의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소통과 협치로 오직 시민민을 위한 화합하는 상생의회가 되고자 집행부, 지역기관 및 단체와 협력을 강화했으며, 의회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초선의원 역량강화 워크숍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 전문성 강화에도 힘

썼다”고 말했다. 이어,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으며, 익산시 주요 현안이었던 도시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 공청회를 실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중오 의장은 “시민행복과 익산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혜를 모아 지역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2023년 의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집행부는 물론 지역기관, 단체와 소통과 협치를 통해 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며, 중요한 사안에 관해서는 공청회 등을 추진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뤄나가고, 역대 의원 선배들과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민을 위한 시민의 정책을 만들어 시민의 삶 전반에 힘이 되어주는 의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의 현장을 더 자주 찾으며 사회적 약자 및 소외·취약계층 결연으로 더욱 다가가고,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더 큰 희망을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성숙하고 수준 높은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직무교육, 연구단체 등을 통해 의원의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에 의정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올바른 언행과 청렴한 생활 등을 통해 신속하고 겸손하게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고 전했다.

브리핑 마무리에서 최중오 의장은 “매 순간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큰 목표를 이루어간다는 노적성해(露積成海)의 자세로 의원 25명 모두가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익산의 밝은 미래를 만들고 시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계묘년 새해에도 익산의 도약을 위해 익산시의회는 언제나 시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산=이재훈 기자

##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열기 뜨겁다

### 1호 기부자를 시작으로 기부행렬 이어져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난 1일 전국 동시 시행된 가운데, 군산을 사랑하는 출향인들을 중심으로 고향사랑 기부행렬이 이어지는 등 기부 열기가 뜨겁다.

군산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난 1일부터 4일 오전까지 21명의 기부자가 고향사랑기부 사이트인 ‘고향사랑’을 통해 221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첫 기부자는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최경석 씨로 지난 1일 ‘고향사랑’을 통해 10만원을 기부했다.

최 씨는 명산동이 고향으로 군산에서 초·중등 및 고등학교까지 마쳤으며 대학 졸업 후 경기도 안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최 씨는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태어나고 자란

내 고향 군산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군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서둘러 기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임준 시장은 “고향 군산을 잊지 않고 군산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기부금을 보내주시는 모든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기부 동참을 부탁드리며, 고향사랑기부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시민이 행복한 군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고향사랑기부 사이트인 ‘고향사랑’(<https://iloveggyang.gok.kr/>)을 통해 기부금 접수와 담례품을 제공중에 있다. 군산시 담례품은 군산사랑상품권을 비롯하여 신동진 쌀, 흰찰쌀보

리, 박대, 울외장아찌, 멸치, 젓갈세트, 군산쌈뽕라면, 잡곡세트, 친환경 방울토마토, 커피디저트 세트, 생선구이밀키트 등 12개 품목이며, 현재 기부자를 대상으로 기부 순서(100만, 300만, 500만, 700만, 1,000번째 기부자)와 기부금 달성액(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달성시 기부자)에 따라 군산사랑상품권을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중에 있다.

한편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는 군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군산시에 기부할 때 이를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담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부자의 세액공제 혜택(10만원)까지 전액 공제와 지역업체 담례품 제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금을 통한 지역 발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다.

/군산=김판근 기자

## 익산시, 청년 · 신중년 일자리정책 참여기업 모집

익산시가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시장 경색에 대비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

시는 기업 인력난 및 경영부담 해소와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은 기업에는 채용지원금 지급을 통해 청년(만 18세 ~ 39세)과 신중년(만 40세 ~ 69세)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자에게는 기업 근무기간에 따라 취업장려금을 지급해 장기근속 유도로 지역 내 정착을 돕는 고용 지원사업이다.

참여기업에는 채용인원 1인당 최대 월 70만원씩 1년간 최대 84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취업자에게는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신중년은 최대 200만원)을 취업지원금으로 지원한다.

시는 오는 11일까지 청년 및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취업자 지원 규모는 청년 25명과 신중년 40명 등 총 65명으로, 구직자를 모집 후 기업과 연계하여 정규직으로의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대상은 익산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외 새해 정규직 추가 채용계획이 있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이다.

기업 최대 참여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의 40% 이내이며 매월 최대급여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참여 신청 방법은 11일까지 익산시청 기업일자리과와 익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익산시, 정기 세무조사 ‘조사기간 선택제’ 시행

익산시는 올해 지방세 탈루 은닉자 세무조사 집중과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기조로 삼겠다고 밝혔다.

우선 탈루 세무 조사를 위해 주식 소유 비율을 50% 초과하여 기업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은닉하거나, 편법으로 각종 감면을 받는 사례 등에 대해 추징에 나선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경영 안정성을 확보한 세무기법도 도입한다.

익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 여건에 맞게 조사기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기간 선택제’를 시행한다.

어려운 사정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를 연기, 일시 납부가 힘든 사유가 있는 기업과 시민에게는 6개월까지 최장 1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동반하는 세무조사 기조를 강화했다.

한편 시는 회계·세무행정의 다양화와 고도화에 발맞춰 세무조사 전문관 제도를 도입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12일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오는 12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첫 번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52회 임시회를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군산 물류지원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은식·윤신에 의원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5건의 부의안건을 상정기로 했다.

이날 의회운영위는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2023년 한해는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서민경제에 온기가 필요한 만큼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의 열망 실현을 위해 동료의원들뿐 아니라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근 기자

#### 익산시, 신혼부부 · 청년 주거안정 본격시행

익산시가 고령화 시대에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 정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익산형 주거안정 금융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2023년도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임차보증금·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신혼부부·청년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및 구입자금 대출 추첨 및 이자 3.0%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자는 익산시민 또는 익산시로 전입 예정인 만19세 ~ 39세의 청년과 신혼부부이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및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며 구입자금의 경우 오피스텔은 지원이 불가하다. 이자 지원은 2년마다 연장신청 하면 6년간 지원 가능하며,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10년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